

## 프로농구 KCC, 정규리그 6위로 첫 챔피언전 제패...MVP 허훈(종합)

등록 2026.05.13 21:20:16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저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허훈이 슛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농구 부산 KCC가 고양 소노를 꺾고 통산 7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했다.

KCC는 13일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소노와의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5차전 원정 경기에서 76-68로 이겼다.

1~3차전을 모두 잡은 뒤 4차전을 내주며 잠시 흔들렸던 KCC는 이날 승리에 힘입어 시리즈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다.

통산 7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룬 KCC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함께 최다 우승팀으로 우뚝 섰다.

또한 2년 전 정규리그 5위로 사상 처음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엔 6위로 '0%의 기적'을 재현했다.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인 이상민 KCC 감독은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프로농구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정상을 밟은 건 김승기 전 소노 감독, 전희철 서울 SK 감독, 조상현 창원 LG 감독에 이어 이 감독이 4번째다.

KCC는 개막 전 자유계약(FA) 최대어 중 한 명이었던 허훈을 영입해 허웅, 송교창, 최준용, 손 룡과 함께 '슈퍼팀'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규리그에선 크고 작은 부상과 불안한 호흡에 발목을 잡혔고, 6위(28승 26패)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허웅이 슛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간신히 봄 농구에 진출한 KCC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6강 플레이오프(PO)에선 3위 원주 DB에 3승, 4강 PO에선 2위 안양 정관장에 3승 1패를 거두고 '업셋(정규리그 하위 팀의 승리)'을 달성했다.

2년 만에 밟은 챔피언결정전에선 4위 SK와 1위 LG를 6연승으로 돌려보낸 5위 소노를 상대했다.

KCC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소노의 돌풍마저 잠재웠다.

허훈의 헌신적인 수비, 허웅의 날카로운 슛, 송교창과 최준용의 미스매치, 룡의 높이 싸움 등 KCC는 개인 기량에서 상대를 압도해 챔피언결정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는 봄 농구 들어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허훈이 차지했다.

허훈은 기자단 투표에서 98표 중 79표를 획득해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MVP 허훈은 1000만원 상금을 받는다.

우승팀 KCC는 1억원, 준우승팀 소노는 5000만원을 수상한다.

이날 허훈은 15점 5도움 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KCC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허웅과 룡이 각각 17점과 14점을 쏘 힘을 보탰다.

반면 소노는 2023년 창단 이후 처음 진출한 봄 농구에서 챔피언결정전까지 났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현과 신인선수상 케빈 캠바오가 분투했지만 소노의 동화는 5차전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정현과 캠바오는 각각 15점과 7점에 그치며 평소보다 부진했다.



[고양=뉴스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저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최준용이 슛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1쿼터는 원정팀 KCC 쪽 흐름이었다.

KCC는 최준용의 골밑슛으로 포문을 연 뒤 공세를 퍼부었다.

최준용은 허훈과 함께 9점을 연속으로 뽑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허웅이 가세해 날카로운 3점으로 격차를 벌렸다.

25-12로 기분 좋게 2쿼터에 돌입한 KCC가 고삐를 더 세게 당겼다.

소노는 연이은 턴오버로 좀처럼 따라붙지 못했다.

KCC는 허웅의 외곽포와 룡의 덩크로 상대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룡이 덩크 후 잘못 추락하는 아찔한 장면이 있었지만 부상은 아니었다.

전반은 KCC가 42-23로 19점 앞선 채 끝났다.

승기를 잡은 KCC가 패색이 짙어진 소노를 난타했다.

3쿼터 시작 직후 최준용과 허웅이 연달아 외곽에서 슛을 성공했다.

한때 25점 차까지 달아난 KCC가 56-41로 4쿼터에 나선 뒤 굳히기에 들어갔다.

최준용부터 시작해 송교창과 허웅 그리고 허훈까지 계속 림을 갈랐다.

소노는 한때 9점 차까지 쫓아갔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남은 시간 KCC는 끈질기게 리드를 지켜 5차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했다.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KBL 챔피언결정전 5차전' 고양 소노 스카이저너스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KCC 손 룡이 슛하고 있다. 2026.05.13. yes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